

추석 가정 예배

인도자(가정의 가장 혹은 신앙의 세대주)

목상기도 인도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50:23)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함께 명절 감사예배 드릴 때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15장 다 같이

1.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2.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참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 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3.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4.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대표기도 가족중에서

성경말씀 출애굽기 23:14-16 다 같이

말씀선포 “추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축복된 날” 설교자
(설교 원고는 뒷면에)

기도 설교자

찬 송 301장 다 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애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 다 같이

2023년 9월 29일

추석 가정 예배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준비

1. 예배상을 준비하고 그 상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둘러 앉습니다.
음식은 차리지 않습니다.
2. 예배순서에 따라서 가족 중 신앙의 세대주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3. 예배순서 중 기도나 성경봉독을 가족들이 나누어 담당하면 좋습니다.
4. 예배 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도행전을 꿈꾸고 세우는 교회
새소망교회
NEW HOPE COMMUNITY CHURCH

[설교말씀]

추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축복된 날 (출애굽기 23:14~17)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축복해 주신 추석입니다. 맛있는 햅쌀밥과 신선한 과일을 즐기며 감사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햅쌀과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파종하고 물, 비료를 주고, 감을 메주고,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하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추석은 수천 년간 지켜온 아름다운 명절입니다. 이 즐거운 날에 무덤을 찾아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며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또 돌보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며,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또 하나님은 때에 따라 비를 주셨습니다. 맑은 하늘과 좋은 햇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취할 태도인 것입니다. 또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보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기념하여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돌리지 말고 현재에도 그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심계명을 말할 때 계명을 말하기 전에 배경을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라는 말씀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과거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할 것을 명하십니다.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런 절기는 국민적인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가 현대에 와서 추수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민적인 감사의 절기로 중추절인 추석을 지켜왔습니다. 추석을 명절로 삼은 것은 삼국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로 즐겁게 지키는 것은 명절의 좋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 날 햅곡식으로, 햅쌀밥으로 떡을 만들어 조상에게 제사 지내며 온 국민이 명절을 지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이 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절기를 맞을 때 가을에 오곡을 주시고, 과일을 주신 분이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이 날은 성묘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조상의 묘를 돌아보는 성묘 자체가 성경적으로도 합당합니다.

그래서 추석을 통해 자연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 받은 나라가 되려면 조상보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합니다. 다만 세상을 떠난 뒤에 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잘 섬겨야 합니다.

또한 추석은 가족이 화목해야 할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이 시작되는 설과 추석 명절은 국민적인 명절로 지켜 가정에 화목과 단합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명절마다 겪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제사 문제입니다. 더러는 기독교를 불효하는 종교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효도의 개념은 다른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효도의 개념은 세상을 떠난 조상에게 제물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나 표면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살아 계실 때, 한 번도 돌아보지 않던 자식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묘에 가서 아니면, 제사상에 제물을 놓고 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도라고 한다면 너무나 비합리적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엄연히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공경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앉아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더러는 그간 섭섭했던 일을 이야기하다 술 취한 김에 하지 못할 말까지 내어놓아 도리어 말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날은 서로 위로하고 반성하면서 가정이 새롭게 단결을 다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다짐한다면 참으로 의미 있는 명절입니다. '마른 떡이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17:1)

추석은 휴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가 추석을 맞아 모든 일을 놓고 좋은 휴식의 시간을 가지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휴식은 큰 축복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휴식이 별 의미가 없겠지만, 자기의 재능을 쏟아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교회와 직장을 섬기며 산 사람들에게는 이 휴식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석은 좋은 계절이요, 감사한 계절입니다.

추석은 또한 가족을 사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고향에 가느라 많은 시간이 걸려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찾아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 아름다운 가정이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이번 추석이 우리 모두가 가족에 대한 새로운 사랑과 서로에 대한 믿음, 사랑, 평화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 **예배 후 가족이 모두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